

농식품기업 지속 발굴 · 성과 확대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홍삼이생강날때 방문 현장행정... 생강 가공식품 성장 사례 주목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역 농식품기업의 우수사례 발굴과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섰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23일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한 농식품 기업 홍삼이생강날때를 방문해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기업 성장 가능성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2019년 설립된 홍삼이생강날때는 생강의 대중화를 목표로 원물 선별과 저온 살균 공정 등을 적용해 생강청과 홍삼액, 아기과자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완주 지역 생강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 가치를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2024년 전통식품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구축과 박람회 참가를 지원했으며, 이후 농생명 대표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 고급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그 결과 매출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3일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한 농식품 기업 홍삼이생강날때를 방문해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기업 성장 가능성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2024년 6억 6천만 원에서 2025년 12억 1명에서 9명으로 확대됐다. 5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고용 인원도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이 함께 참석

해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생산과 판로 확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제품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브랜드 고도화, 소비자 직접 확대 등 후속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인터뷰와 사례 홍보를 통해 기업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방문은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생명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 농생명 대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성장·도약 단계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지역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페이퍼, 친환경 경쟁력 입증

9회 연속 '녹색기업' 인증

국내 대표 제지기업 전주페이퍼가 친환경 투자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녹색기업' 재지정을 받으며, 1995년 제지업계 최초 지정 이후 9회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 장기간 환경 개선 성과를 축적해 온 기업에만 주어지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사는 생산 전 과정에 걸친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실행 중심의 친환경 경영을 강화해 왔다. 폐지를 원료로 활용하는 재생 기반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하루 9만 톤 규모의 폐수 처리 시설과 자원순환 설비를 통해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 설비와 바이오가스 발전 시스템을 연계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관계사인 전주원퍼워는 2기의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를 운영하며



약 48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시간당 120톤 이상의 스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생산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질소산화물과 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SCR 설비와 집진시설, 자동측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오염물질 관리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주페이퍼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자원 재활용 확대,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 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 환경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친환경 경영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전주페이퍼는 2029년까지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10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는 약 90개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오상근 기자

중동 리스크 대응 위한 전북지역 기업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 방안 모색

전주상공회의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주상의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중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북지역 기업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중동 지역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자동차, 화학, 기계, 건설, 운수 등 주요 업종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



전주상공회의소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중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북지역 기업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과 지역 경제 영향이 공유됐으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가 집중 논의됐다. 화학업계는 나프타 등 기초 원료 수

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생산 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기업들도 해상 운임과 전쟁 보험료 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거래 위축과 수출 감소 등 향후 사업 차질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산업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확충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SOC 사업 조기 발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편성, 수익계약 한시 적용 연장, 관공공사 대금 선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건의했다.

김정태 회장은 "중동 정세 불안은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며 "기업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도 흔들리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AI 기술고도화 ·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는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지능

형 농업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기술사업화와 기술고도화 두 가지로 나뉜다.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는 노지 농업 관련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 AI 기술 실증 및 테스트 비용 등을 지원한다. 기술고도화 분야는 기반 기술 확보와 소프트웨어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준설 예산 39억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규모 준설 예산을 확보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6년 배수개선사업 준설을 위한 추가 예산 39억 2천만 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배정 예산 140억 원 가운데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해 익산과 완주 등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반복되는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사

업의 시급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확보된 예산은 정읍, 김제, 익산, 완주 등 도내 17개 지구에 투입돼 배수로 내 퇴적토와 수초 제거 작업에 사용된다. 공사는 정마철 이전인 6월 말까지 모든 준설 작업을 마무리해 배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경지 침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몇 년간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3년 19억 원, 2024년 18억 원, 2025년 33억 원에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며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전북지역본부는 준설 사업과 함께 노후 배수시설 점검과 현대화 사업도 병행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한·중·일 전문가, 부안서 영상식물학 신기술 논의

농촌진흥청이 국내외 전문가들과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기술의 최신 흐름을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영상식물학회와 공동으로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북 부안 소노벨 변산 리조트에서 '미래 농업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영상식물학 최신 연구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산업체를 비롯해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기관과 대학, 산업을 대상으로 식물 이미지 분석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